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 내용과 정책제안 등을 압축해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발간물입니다.

성혜정 부연구위원
손재선 부연구위원
정예진 전문연구위원
허 용 부연구위원

2025. 11. 24.
No. 1039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명수
www.krihs.re.kr

이 브리프는 나무를 베지
않고 만든 생분해성 펄프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공간정보의 보이지 않는 가치 재발견: 가치기반 사전평가체계로의 전략적 전환 방안

주요 내용

- ① 공간정보의 사회, 경제, 정책, 기술적 가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정책 집행자들은 공간정보사업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제시하고 이해시키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② 특히 디지털 트윈 등 3차원 공간정보의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미국, 영국, 호주 등은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지속적 정부투자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및 가이드라인 제공, 조직체계 정비, 경제성 분석 등 다각적 노력 진행
- ③ 공간정보사업을 통한 산출물 및 성과의 사회·경제·정책·기술 가치에 대한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공간정보사업 사전평가체계의 운영방식 및 평가항목 등을 가치기반 평가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

정책방안

- ① (공간정보사업 사전평가체계 개선 → 가치기반 평가체계로 전환) 공간정보의 가치 및 인식 제고, 우수성과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평가의 객관성 확보, 평가운영의 전문성 및 홍보 강화, 성과평가와의 연계를 통한 정책지원 기능의 강화 필요
- ② (평가체계 전환을 위한 방안) 공간정보의 사회·경제·정책·기술적 가치를 반영한 가치기반 평가를 위해 평가항목의 개선, 평가시기·조직 등 운영체계의 개선, 평가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방안 제안
- ③ (국가 공간정보사업 평가 및 정책지원 플랫폼 구축) 국토교통부가 현재 운영 중인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을 평가 및 정책지원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하여 평가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결과 및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구축하며, 정책수립 지원 플랫폼으로 활용
- ④ (공간정보 정책평가 및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운영) 사전평가 및 성과평가의 연계를 통한 평가체계의 완성도와 전문적 운영, 평가결과의 지속적 홍보, 우수성과의 체계적 전파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과 운영 필요

01. 공간정보의 특성과 보이지 않는 가치

공간·위치정보가 가지는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 기대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기대 지속) 공간정보(기술)를 활용한 성장 가능성에 대해 세계적 기업·기관들은 많은 관심과 기대를 보이고 있음

- 가트너는 2025년 10대 기술 전략 중 하나로 ‘공간컴퓨팅(Spatial Computing)’을 선정하며 디지털트윈 기술의 확장과 함께 향후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몰입형 경험에 대한 증가를 예상
- 옥스퍼드지속가능금융그룹(Oxford Sustainable Finance Group: OSFG)은 ‘공간금융(Spatial Finance)’ 개념을 제시하며 전 세계 금융 및 재무, 투자 분야에 공간정보(데이터)와 공간정보분석을 적용하고 최신의 인공지능과 결합함으로써 금융의사결정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 잠재적 가치에 대해 많은 연구를 수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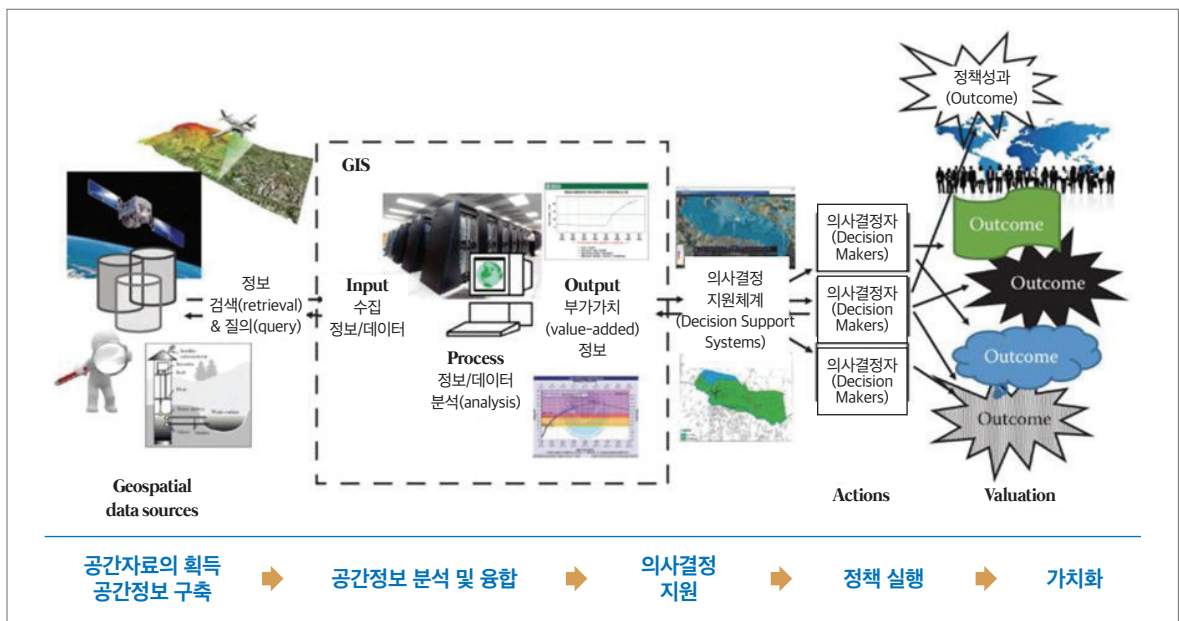
(공간정보의 특성) 공간정보는 ‘위치(location)’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어디(when)’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핵심정보임. 세계적인 IT 기업인 IBM은 ‘지구 표면 또는 그 근처에 위치한 객체, 이벤트 또는 기타 형상물을 설명하는 정보로 위치정보, 속성정보를 시간정보와 결합하는 데이터’라고 공간정보를 정의하며, 공간정보플랫폼 시장에 적극 참여

- 하지만 위치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패턴 분석, 추세 파악 등 통찰력을 얻는 데에 한계가 있고 기존의 데이터와 결합하여 활용되어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특성을 지님
- 이와 같은 이유로 공간정보의 가치는 최종사용자의 용도에 따라 달라지며, 아울러 이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최종가치를 예측하는 데 매우 제한적임

공간정보가 가치를 생성하는(value-added) 과정 - 드러나지 않는 속성

(공간정보의 가치화 과정) 공간정보가 가치를 얻는 과정(valuation process)은 공간자료의 획득 및 공간정보의 구축 → 공간정보 분석 및 타 데이터 융합 → 의사결정지원체계 활용(공간정보서비스 또는 플랫폼) → 정책 및 의사결정 실행 → 가치화 발생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과정과 중간 및 최종 산출물, 성과 등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지님

그림 1 공간정보의 가치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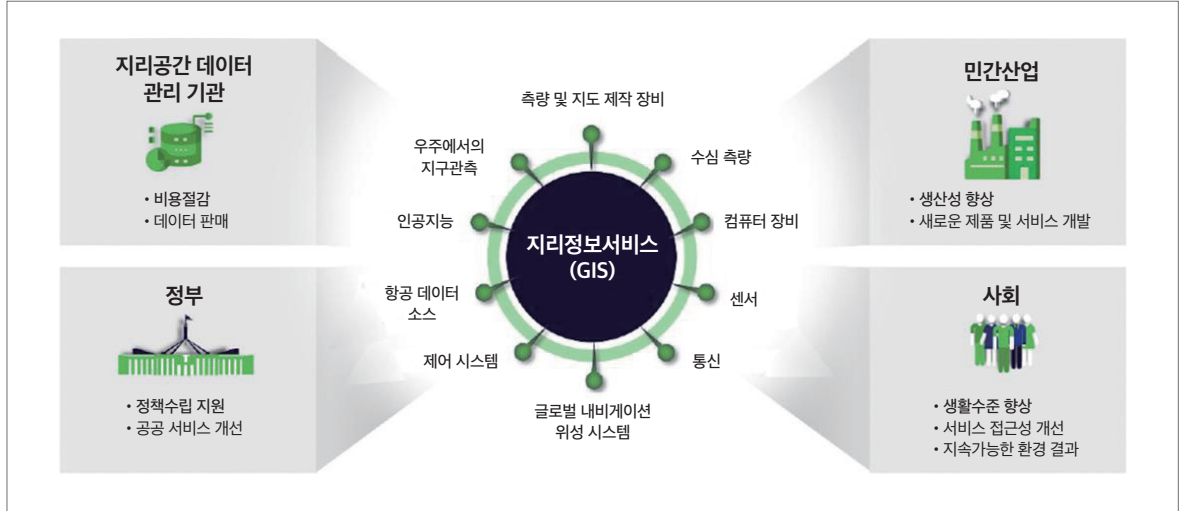


자료: Kruse et al. 2018, 6 그림을 활용하여 저자 번역 및 부분 추가.

공간정보의 사회·경제·환경·정책적 혜택

공간정보는 전자지도, 위성영상 등 공간정보(데이터)라는 1차 산출물로서의 가치 이외에도 공간정보(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교통, 환경, 재난, 복지 등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 지원,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안전 및 사회적 약자 지원과 같은 사회적 가치의 증대 등 다양한 경제·정책·사회·환경·기술적 혜택을 얻을 수 있음

그림 2 공간정보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혜택



자료: Geospatial Council of Australia 2024, xi, Figure ES 1.

표 1 선행연구에 제시된 공간정보의 가치

가치	주요 내용
경제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G2G, G2B, B2B, B2C 활동에서 창출되는 가치(최병남 외 2010) 공간정보정책으로 변화되는 산업 및 시장의 확대, 공간정보 융복합산업의 발전, 국가경제 기여도(임시영 외 2023)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Geospatial Commission 2022) 비용 절감, 데이터 판매, 생산성 향상(Geospatial Council of Australia 2024)
정책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G2B, G2C 활동에서 창출되는 가치(최병남 외 2010) 정책수립 지원(Geospatial Council of Australia 2024)
사회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C2G, C2B, C2C 활동에서 창출되는 가치(최병남 외 2010) 공간정보정책의 성과물이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시영 외 2023, 82-83) 공공 서비스 개선, 시민 삶의 질 향상, 사회적 불평등 완화(Geospatial Commission 2022) 공공 서비스 개선, 생활 수준 향상, 시민 접근성 개선(Geospatial Council of Australia 2024) 재난관리, 보건복지, 사회적 약자 보호, 인권 보호 지원(강혜경 외 2019)
환경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배출 감소, 자연자원 보호, 환경복원에 기여(Geospatial Commission 2022) 지속가능한 환경(Geospatial Council of Australia 2024) 환경관리, 안전관리, 건강관리 등(임시영 외 2023, 85)
기술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정보 기술개발이 타 분야 기술과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거나 타 산업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기술발전에 기여(임시영 외 2023, 83)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Geospatial Council of Australia 2024)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나 시스템, 교육 또는 제도가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사용자 효과)(임시영 외 2023, 82)

자료: 선행연구(최병남 외 2010; 임시영 외 2023; 강혜경 외 2019; Geospatial Commission 2022; Geospatial Council of Australia 2024)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공간정보 가치 재발견 지원을 위한 정책적 수단 필요

공간정보는 기존 산업의 효율성·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초 인프라로서의 역할과 피지컬 AI, 디지털 트윈과 같은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는 기반 역할을 하나 비가시적 특성으로 공간정보사업 추진에 어려움

- 여타 인프라 사업처럼 공공투자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나 도로·철도 구축 사업과 같이 가시적인 성과로 드러나지 않아 이해관계자 설득이 매우 어려움

공간정보의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하고 공간정보사업에 투자하는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필요함

02. 사전평가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공간정보사업의 예산지원을 위한 사전평가체계 운영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7조에 따라 공간정보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수립한 시행계획의 집행 예산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제시(공간정보사업 사전평가¹⁾)

- 국토교통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공간정보사업 중 우수성이 인정되어 우선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평가하여 선정함
- 선정된 약 10여 건의 '우선투자 필요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시하고 있음

현재 운영 중인 공간정보사업 사전평가는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투자) 확보 지원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높지 않은 편인데 이는 공간정보의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한 낮은 인식과 전략적 투자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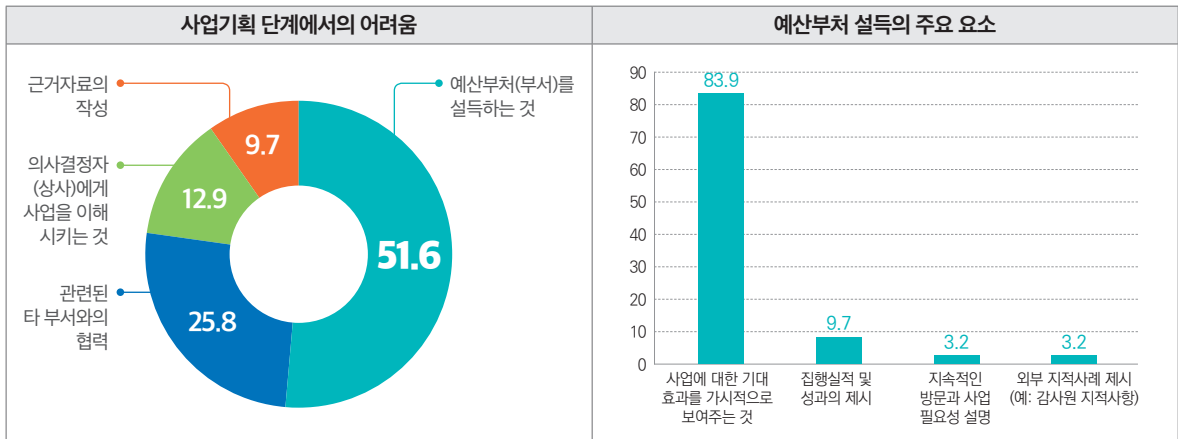
공간정보사업 사전평가의 문제점 - 공간정보의 잠재가치 및 예산투자 필요성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공간정보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공간정보사업의 기획과 예산확보 과정에서 '예산부처 설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담당자들은 예산부처 설득을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선택하였으며 의사결정권자를 이해시키는 것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
- 예산심의 담당자의 경우 공간정보가 전문 분야에 해당하여 이해하기가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가시적인 성과, 기대효과 및 국정과제와의 관련성 등을 강하게 요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중앙행정기관 공간정보사업 담당자가 겪는 문제점

(단위: %)



자료: 중앙부처 공간정보사업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32인) 결과.

따라서 공간정보사업의 기획 및 사전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공간정보의 잠재 가치와 투자 필요성에 대해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도구가 필요하며 현재 운영 중인 사전평가체계를 개편(전환)함으로써 해결책 모색 필요

이러한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영국, 미국, 호주 등 공간정보분야 선진국에서도 겪고 있는 문제로 각국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프레임워크 개발, 관련 조직정비 및 평가체계 마련, 공간정보가치 연구 등 다양한 해결책 모색 중(본고 3장 참조)

1)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평가는 평가시기에 따라 사전평가, 사후평가로 나누어 칭하는데, 사업의 시행 이전에 그 타당성과 우수성 등을 고려하므로 이를 공간정보 사전평가로 칭하며, 사업시행 이후에 시행하는 집행실적 평가(예산집행률, 산출물, 성과 등을 평가)는 사후평가로 칭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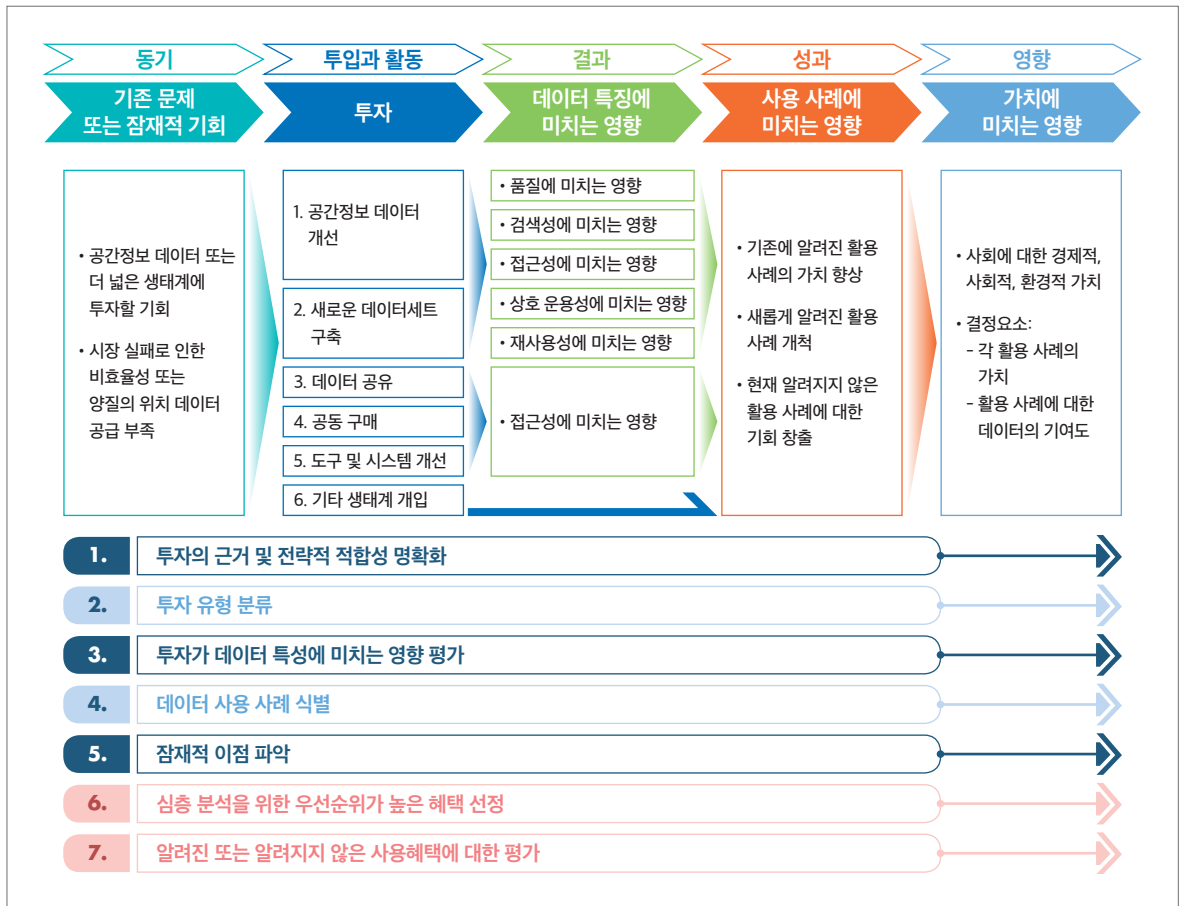
03. 공간정보 가치기반 평가 및 활용 사례

[영국] 공간정보의 사회·경제·환경 가치 측정을 지원하는 공간정보 투자지원 프레임워크 개발 및 가이드라인 제공

(공간정보 가치평가의 필요성 인식) 공간정보가 영국 경제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Net Zero, COVID-19 팬데믹 관리 등 정책개발에 활용되는 등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사업의 뚜렷한 혜택이 드러나지 않아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정보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투자 프레임워크를 개발함

- 영국 공간정보위원회 주도로 공간정보의 사회, 경제, 환경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침과 평가사례를 공간정보의 관리기관(주로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에 제공(2022)

그림 4 영국 공간정보위원회의 공간정보 투자부문 평가 논리모형과 프레임워크



자료: Geospatial Commission 2022, 6; 31.

(공간정보 가치평가 지원을 위한 프레임워크) 공간정보 투자 가치평가 프레임워크는 공간정보에 대한 투자타당성을 논리적으로 평가하도록 총 7단계로 구성

- 먼저 공간정보사업의 유형을 ① 기존 공간데이터세트(set)의 개선 및 유지관리, ② 새로운 데이터세트의 생성, ③ 데이터 공유 정책, ④ 공동구매, ⑤ 활용 도구 및 시스템의 개선, ⑥ 공간정보생태계 지원정책 6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사업유형별 특성에 대해 정의
- 국가공간정보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주요 국가 공간정보사업(예: 국가지하자산등록사업, 토지 및 부동산정보등록사업, 공공부문 공간정보 제공, 대중교통 네트워크 정보 제공)에 대해 각각 사업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 경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한 사례까지 제공함
- 이를 활용하여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자, 공간정보사업의 기획자, 공간정보정책 의사결정자 등이 공간정보사업의 드러나지 않았던 가치를 발굴하고 인지하도록 지원

[미국] 국가공간정보자산 주요 기관 평가 및 국가공간정보자문위원회의 관리예산국(OMB) 공공투자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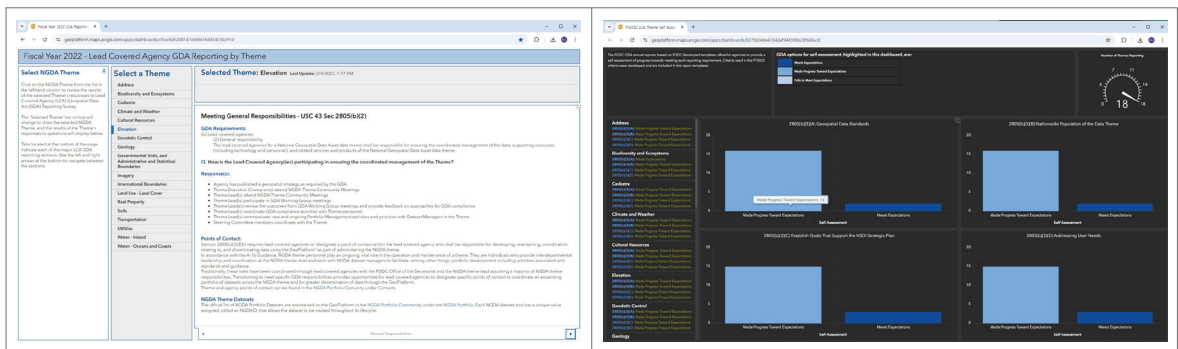
(공간정보법 제정과 관련 조직 정비 및 평가체계 마련) 2018년 공간정보법(Geospatial Act 2018) 제정과 함께 공간정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주요 공간데이터인 국가공간정보자산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함

- ① 기존 연방지리정보위원회(FGDC)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고, ② 내무부 소속 국가공간정보자문위원회(NGAC)의 예산권고 등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③ 국가공간정보자산(National Geospatial Data Assets)의 주요 관리기관에 대해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연방지리정보위원회에서 그 결과들을 취합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 관리기관 내 담당자를 지정함으로써 평가 및 취합 등의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연방지리정보위원회에서 사업의 평가결과들을 의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공간정보사업의 평가와 예산수립의 환류 체계를 구성하였음

(주요 데이터 관리기관의 평가체계 정립 및 공개) 주요 데이터 관리기관(Lead Covered Agency)은 국가공간정보자산의 관리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연방지리정보위원회에서 취합하여 의회 보고 및 일반 공개

- 평가항목은 데이터 공유, 개방형식의 데이터 공개, 데이터 유지보수, 데이터 통합 촉진방법, 표준 데이터 사용 등이며 각 평가항목에 대해 질의항목을 선별하고 기관별 상황에 맞게 체크하여 평가(정성 및 정량)
- 연방지리정보위원회가 평가결과를 취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운영하여 누구나 결과를 확인하도록 공개하고 있음

그림 5 미국 연방지리정보위원회(FGDC)의 주요 공간정보자산(NGDA) 관리 평가결과 공개 대시보드 사례



자료: (좌) LCA GDA Reporting by Theme. <https://geoplatform.maps.arcgis.com/apps/dashboards/cf5ac6d5208147de866164d5433bc91d> (2024년 10월 2일 검색); (우) FGDC GDA annual reports dashboard. <https://geoplatform.maps.arcgis.com/apps/dashboards/8375b040e61042ef944396b28f668ac8> (2024년 10월 2일 검색).

(국가공간정보자문위원회의 관리예산국(OMB)에 대한 공공투자 권고) 예산투자가 필요한 공간정보사업에 대해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예산 주무부처인 관리예산국이 공간정보에 대한 전문지식을 공유하여 예산문제에 함께하기를 촉구

- 국내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트윈 등 3차원 공간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인 3차원 표고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데이터 구축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였음
- 국가공간정보자문위원회는 투자 제고를 위해 '3차원 표고 데이터 구축 프로그램(3D Elevation Program)'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추가적인 발전 방향과 투자 제안에 대해 권고하였음
- 아울러 예산을 담당하는 관리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대해 공간정보협의체에 참여하여 공간정보사업의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다중기관의 협력과 자금 문제에 대해 함께하기를 촉구함

[호주] 공간정보사업의 경제적 효과 평가

호주의 공간정보위원회는 공간정보(서비스)의 경제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정책추진을 위한 직접적인 근거자료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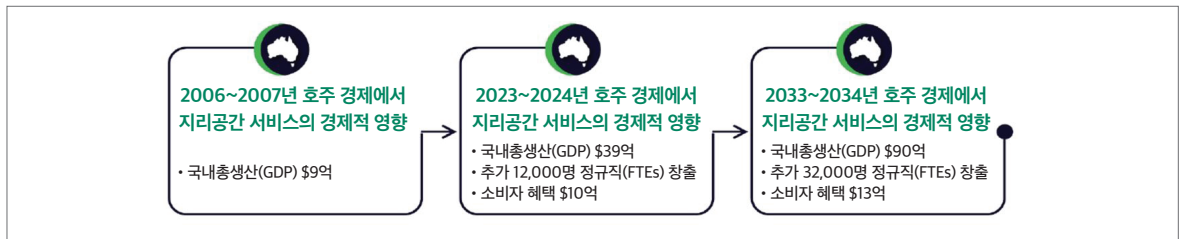
- 2008년 처음으로 국가 단위의 공간정보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2024년 공간정보기술이 가져온 사회·경제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10년 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전망하여 발표함

- 공간정보가 호주의 국내총생산, 실질소득, 고용 측면에서 가지는 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는데 GDP 측면에서 호주 GDP의 약 1.5% 정도 수준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향후 10년 후 공간정보사업에 우호적인 투자가 이뤄졌을 때와 현 추세연장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우호적 환경일 경우 공간정보사업에 의해 국내총생산이 약 2~3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

- 이 외에도 소비자가 받게 될 혜택으로 디지털 지도 서비스, 인터넷 검색 시간 절약, 배송비용 절감, 교통 시간 및 비용의 개선, 배출가스의 감소, 교통사고 사망자의 감소 등과 같은 혜택이 있으며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가치는 13억 호주달러(한화 약 119조 5,700여억 원²⁾) 수준으로 평가됨

그림 6 공간정보서비스의 경제적 효과(호주, 우호적 시나리오)



자료: Geospatial Council of Australia 2024, xiv. Figure ES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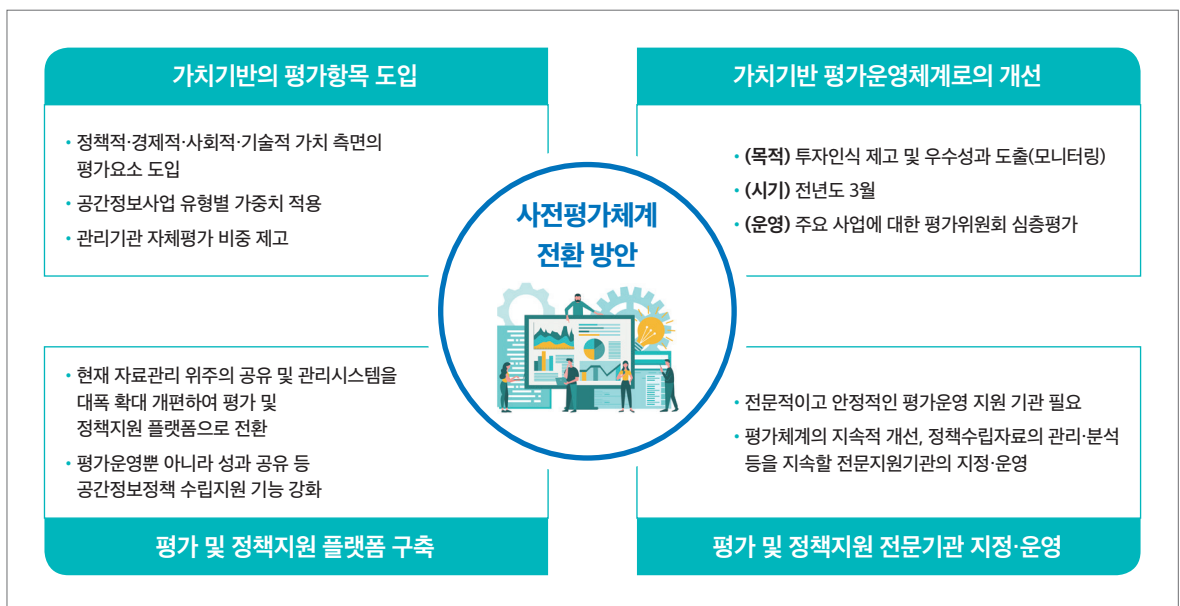
04. 공간정보사업 사전평가체계 전환방안

가치기반 사전평가체계로의 전환

다소 형식적으로 추진된 공간정보사업 사전평가를 공간정보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투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도록 가치기반의 사전평가체계로 전환 필요

- 공간정보의 경제적·정책적·사회적·기술적인 가치 측면에서 평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성과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각 이해당사자들(의사결정자, 예산심의자, 사업운영자, 산출물의 사용자 등)의 합의된 의견도출에 활용하도록 함

그림 7 가치기반 공간정보사업 사전평가체계로의 전환 방안



2) 환율 약 921원 기준.

공간정보 가치를 반영하는 평가체계로의 전환 및 정책수립 지원체계로의 확장 방안

(공간정보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항목 도입) 공간정보의 정책의사결정지원으로서의 가치, 직접적인 경제성뿐 아니라 효율성 제고, 파급효과 등의 경제적 가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재난/안전문제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혁신성 제고 등의 기술적 가치를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기존 항목에 가치기반의 평가항목 추가 도입

-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분석한 결과 공간정보의 정책적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다음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기술적 가치 순으로 평가됨

표 2 공간정보의 평가항목 개선(안)

구분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부합성 • 정책적 시급성 • 행정업무 혁신성 • 기본공간정보 관련성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 및 고용 • 공공 서비스의 개선 • 재난/안전문제 해결기여 • 환경문제 해결기여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투자 필요성 • 파급효과 • 효율성 제고 • 중복투자의 예방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운용성 제고 • 데이터품질 제고 • 적용기술의 적합성 • 기술적 혁신성

(가치기반의 공간정보사업 사전평가 지원을 위한 평가운영체계 개선) 평가의 목적을 투자인식제고 및 우수성과 도출에 두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평가시기 조정(3월 이전),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층평가 등 운영 개선

(국가공간정보정책 평가 및 정책수립지원 플랫폼 구축) 공간정보사업 자료관리 위주로 활용되는 ‘공유 및 관리시스템’을 대폭 확대 개편하여 가치기반의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평가업무 기능을 확대하고 성과평가와 연계함과 동시에 우수성과의 공유 및 홍보 기능을 강화하는 ‘평가 및 정책수립지원 플랫폼’ 구축

- 공간정보정책/사업의 현황 모니터링과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확대 구축
- (공간정보분야 유관 시스템·플랫폼과 연계한 정책지원기능 강화) 공간정보 유통플랫폼인 K-Geo, 브이월드 플랫폼과 공간정보표준관리시스템, 품질관리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사업결과(산출물) 및 성과 모니터링 추진

(공간정보사업 평가운영과 정책지원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대부분 연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공간정보사업 특성상 사전평가체계는 성과평가와 필수적으로 연계되고 환류되어야 하며 종합적 평가 및 환류체계로 발전 필요

- 평가체계의 지속적인 운영과 개선, 우수성과에 대한 홍보 강화, 평가자료 분석을 통한 정책수립지원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 역량 및 조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정책 운영을 제안

참고문헌

강혜경, 임용호, 조판기, 김기현, 오영진. 2019. 공간정보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제고방안. 세종: 국토연구원.
 임시영, 장요한, 이세원. 2023. 국정운영 과학화 추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정책 평가체계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최병남, 이영주, 강혜경. 2010. 공간정보 융복합 가치사슬과 파급효과 분석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Geospatial Commission. 2022 Measuring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value of public sector location data-Benefit Appraisal Guidance. UK Geospatial Commission.
 Geospatial Council of Australia. 2024. Economic impact of geospatial services in Australia-A report prepared for the Geospatial Council of Australia. Geospatial Council of Australia.
 Kruse B. J., Cropvoets J., Pearlman F. 2018. *GeoValue - The Socioeconomic Value of Geospatial Information*. CRC Press.

- **성혜정**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부연구위원(hjsung@krihs.re.kr, 044-960-0407)
- **손재선**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부연구위원(jsson@krihs.re.kr, 044-960-0418)
- **정예진**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전문연구원(yaejin@krihs.re.kr, 044-960-0645)
- **허 용**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팀 부연구위원(yhuh@krihs.re.kr, 044-960-0404)

※ 이 브리프는 “성혜정, 손재선, 정예진, 허용. 2025. 공간정보 가치인식 제고를 위한 사전평가체계 개선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요약·정리한 것임.

※ 이 브리프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정부나 국토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

